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5. 9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08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체감경기 2개월 연속 하락(중견업체 하락 주도), '06. 9 이후 최저 수준
자재비 지수도 여전히 20선에 불과...'04. 3 이후 최저 수준

- 2008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6.8p 하락한 51.4를 기록해 2006년 9월(50.9)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지난 3월 건설 자재비 급등 및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대비 16.8p 급락한 58.2를 기록했는데, 4월에도 전월대비 6.8p 하락하여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 이로써 체감경기 지수는 51.4를 기록하여 2006년 9월에 50.9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또한 통상 봄철에는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업체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중견, 중소 업체의 지수는 5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심각함.
- 대형 업체 지수는 63.6을 기록하여 전월(55.6)에 비해 소폭(8.1p) 상승했지만, 여전히 70선을 넘지 못했는데, 70선을 밀도는 것은 2006년 9월(60.0) 이후 처음임.
- 중견 업체와 중소 업체의 지수는 각각 46.2, 43.1을 기록해 50선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현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 중소 업체의 체감경기 지수가 소폭(8.1p, 0.9p) 상승한 가운데, 중견업체의 지수가 큰 폭(-28.8p)으로 하락해 체감경기지수 하락을 주도함.

-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2.8p 하락한 63.4를 기록했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비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체감경기 지수와 마찬가지로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2.8p 하락한 63.4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1월 53.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62.6, 주택 58.3, 비주택 54.4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 경기변화에 민감한 비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지난 달에 이어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의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함.
-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는 각각 100.7, 83.6을 기록해 자재 및 자금부문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6.0p, 8.7p 상승한 48.2, 24.7을 기록했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50선에 미치지 못하여 상황이 계속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재비 지수는 24.7을 기록하여 CBSI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최저 수치를 보인 전월(16.0)보다는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다소 나아졌지만, 2004년 3월 17.5을 기록한 이후 4년 1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한편, 공사대금수급은 전월대비 2.7p 상승한 79.5,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대비 4.4p 상승한 74.7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의 악화수준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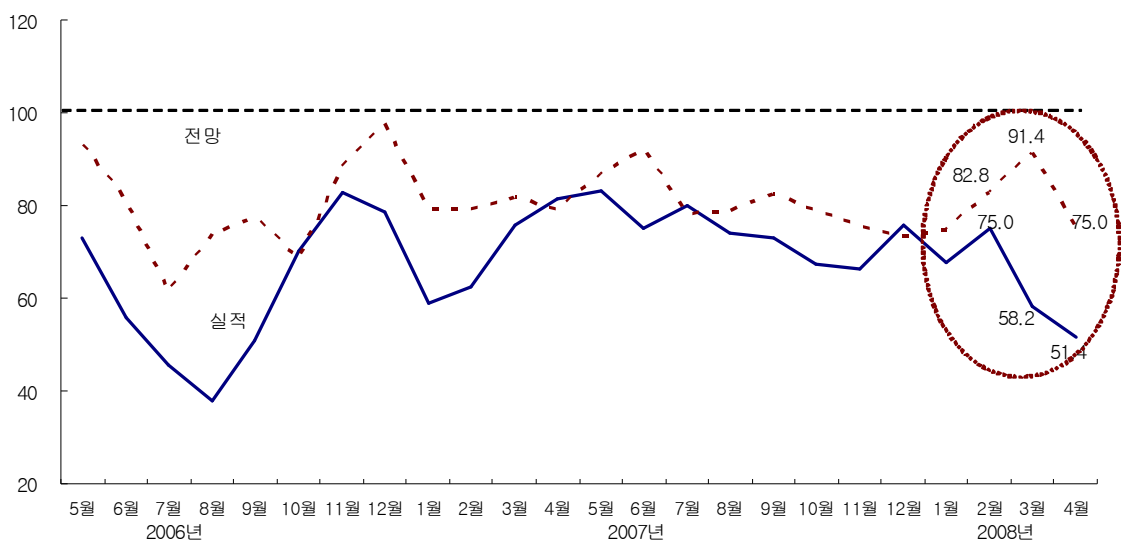
※ 붙임 : 2008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자료.

2008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체감경기 지수 2개월 연속 하락, '06. 9 이후 최저 수준 기록

- 2008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6.8p 하락한 51.4를 기록해 2006년 9월(50.9)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지난 3월 건설 자재비 급등 및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대비 16.8p 급락한 58.2를 기록했는데, 4월에도 전월대비 6.8p 하락하여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 이로써 체감경기 지수는 51.4를 기록하여 2006년 9월에 50.9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또한 통상 봄철에는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냄.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업체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중견, 중소 업체의 지수는 5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심각함.
- 대형 업체 지수는 63.6을 기록하여 전월(55.6)에 비해 소폭(8.1p) 상승했지만, 여전히 70선을 넘지 못했는데, 70선을 밑도는 것은 2006년 9월(60.0) 이후 처음임.
- 중견 업체와 중소 업체의 지수는 각각 46.2, 43.1을 기록해 50선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현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5.1	80.1	74.0	73.1	67.2	66.4	75.7	67.6	75.0	58.2	51.4	75.0	67.4
규모 별	대형	83.3	100.0	91.7	100.0	77.8	70.0	81.8	72.7	87.5	55.6	63.6	77.8	81.8
	중견	76.7	81.3	76.9	64.0	73.3	73.1	76.9	75.9	79.3	75.0	46.2	89.3	57.7
	중소	63.6	55.4	50.0	52.0	47.9	54.7	67.2	52.1	55.4	42.2	43.1	55.6	61.5
지역 별	서울	87.9	92.9	85.1	88.5	76.6	75.8	82.6	76.3	86.2	63.7	60.0	82.3	76.1
	지방	57.9	60.1	56.3	48.5	50.5	51.9	61.6	53.1	55.6	46.9	36.6	61.6	52.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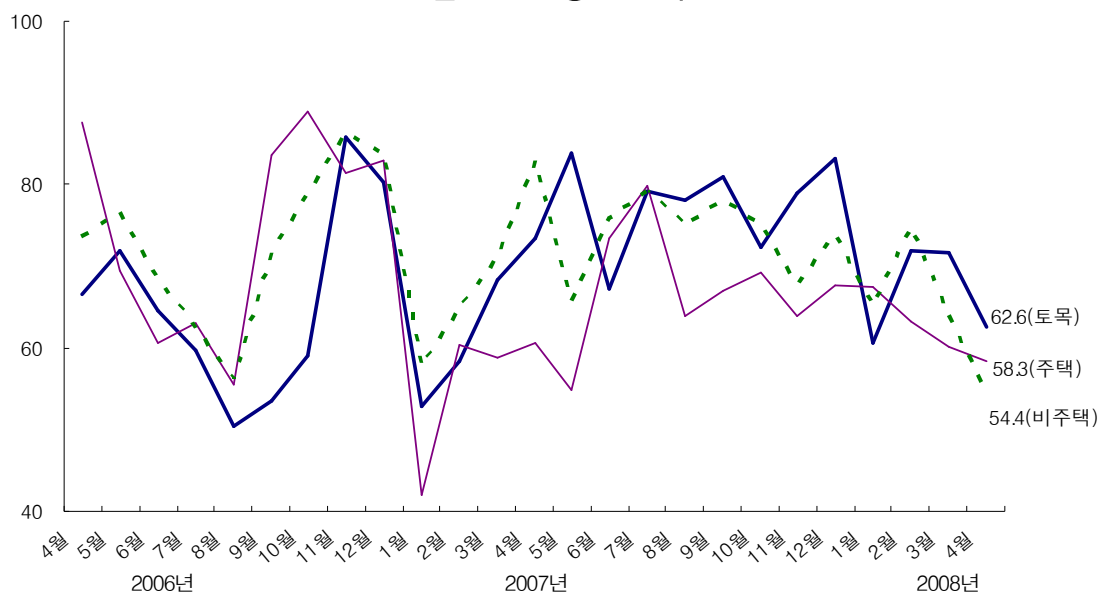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60.0, 지방업체가 36.6을 기록 지방업체의 침체가 매우 심각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3.7p 하락 하였으며,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10.3p 하락하여 체감 경기 침체수준이 전월대비 악화됨.
- 지방업체의 체감 경기 침체수준은 2004년 8월(35.2)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2008년 5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67.4를 기록하여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 업체는 81.8, 중견업체는 57.7, 중소기업체는 61.5로 전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는 76.1, 지방업체는 52.9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2.8p 하락한 63.4 기록,
비주택 물량지수의 침체 가장 심각

- 2007년 4월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2.8p 하락한 63.4를 기록했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비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체감경기 지수와 마찬가지로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2.8p 하락한 63.4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1월 53.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62.6, 주택 58.3, 비주택 54.4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 경기변화에 민감한 비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토목물량은 전월보다 9.0p 감소한 62.6을 기록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치(60.5)를 기록함.
 - 주택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8p 감소한 58.3으로 2007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9.7p 감소한 54.4를 기록, 2006년 1월 49.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81.8, 중견업체 57.7, 중소기업체 48.4를 기록해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가 가장 낮아 여전히 중소기업체의 물량 침체가 심각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3.4	81.8	57.7	48.4	76.4	41.1
	전망	81.0	100.0	76.9	63.5	92.5	61.7
토목	실적	62.6	81.8	56.0	47.6	73.0	45.3
	전망	69.9	81.8	64.0	62.5	76.7	58.6
주택	실적	58.3	63.6	66.7	42.6	67.4	40.7
	전망	61.1	63.6	66.7	51.8	66.1	51.4
비주택	실적	54.4	72.7	56.0	31.0	71.9	24.8
	전망	74.0	100.0	60.0	59.3	86.7	53.8

주 : 실적은 2008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5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6.2p 상승한 76.4를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16.6p 하락한 41.1을 기록, 지방업체의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 2008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1.0을 기록하여 공사물량 침체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자재비 지수 여전히 20선에 불과...'04. 3 이후 최저 수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지난 달에 이어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의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함.
-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는 각각 100.7, 83.6을 기록해 자재 및 자금부문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 지수가 전월대비 19.5p 상승한 100.7을 기록 인력수급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도 전월대비 6.6p 상승한 83.6을 기록해 침체 수준이 개선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79.5	100.0	76.9	58.5	89.8	62.3
		전망	84.9	100.0	88.5	63.1	93.7	69.7
	자금조달	실적	74.7	81.8	80.8	59.4	83.9	58.3
		전망	81.0	90.9	88.0	61.5	89.5	65.0
인력	수급	실적	100.7	100.0	111.5	89.2	103.1	95.9
		전망	99.8	100.0	107.7	90.5	103.9	92.1
	인건비	실적	83.6	100.0	84.6	63.1	93.3	67.2
		전망	86.2	100.0	92.3	63.1	94.5	72.0
자재	수급	실적	48.2	54.5	46.2	43.1	53.3	40.0
		전망	53.4	63.6	48.0	47.7	59.6	43.8
	비용	실적	24.7	45.5	11.5	15.4	31.1	15.0
		전망	34.6	45.5	34.6	21.9	41.7	22.7

주 : 실적은 2008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5월 예측지수임.

- 반면,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6.0p, 8.7p 상승한 48.2, 24.7을 기록했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50선에 미치지 못하여 상황이 계속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재비 지수는 24.7을 기록하여 CBSI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최저 수치를 보인 전월(16.0)보다는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다소 나아졌지만, 2004년 3월 17.5을 기록한 이후 4년 1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한편, 공사대금수급은 전월대비 2.7p 상승한 79.5,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대비 4.4p 상승한 74.7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의 악화수준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